남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일 문학경기장에서 벌어진 북한과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연장 후반 종료 직전 임창우(왼쪽 3번째)의 결승골이 터지자 한데 모여 환호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을 1-0으로 누르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인천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gtyong11

1분 판타지…한국축구 기적의 금메달

북한 꺾고 28년 만에 AG 금메달

임창우, 연장 후반 종료 1분 전 결승골
역대 최약체 평가 불구 AG 무실점 우승
24년 4강 징크스·북한전 열세 탈출까지

한국남자축구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밟았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2일 문학경기장에서 펼쳐진 북한과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연장 후반 종료 1분 전 터진 임창우(대전)의 극적인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한국남자축구의 아시안게임 단독 우승은 1986년 서울대회 이후 처음이다. 앞선 2차례 우승(1970·1978년)은 버마(미얀마), 북한과의 공동우승이었다.

힘겨웠다. 역대 '최약체'라는 오명 속에 조별리그 3전승, 홍콩(16강전)-일본(8강전)-태국(4강전)을 격파하며 12골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2% 부족했다. 윤일록(서울)-김신욱(울산)의 부상 이탈 여파였다. 이 감독은 변명 대신 결과로 입증했다. 엔트리 18명만으로 결승에 올라 당당한 승부를 펼쳤다.

●'성지'에서 얻은 기쁨

문학경기장은 2002한일월드컵에서 히딩크호가 16강을 확정하며 4강 신화의 초석을 닦은 한국축구의 또 다른 '성지'다. 이날 다시 4만7000여 홈 관중 앞에서 소중한 기억을 추가했다. 극심한 긴장감을 딛고 초반부터 기세를 올린 한국은 전반 20분 측면 날개 이재성(전북)의 부상으로 김영욱(전남)이 투입되는 변수를 맞았다.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다. 후반 28분 북한 박광룡의 헤딩슛이 크로스바를 때렸지만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0-0에서 맞이한 연장전. 이미 북한은 이라크와의 준결승에서 연장 접전을 치렀다. 이광종 감독은 연장 후반 3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털어낸 김신욱을 이종호(전남) 대신 투입했다. 김신욱의 투입 이후 북한은 전진하지 못했다. 결국 문전 혼전 상황에서 임창우의 짜릿한 결승골이 터졌다.

●징크스 탈출&복수혈전

우승은 2가지 선물을 가져왔다. '4강 징크스' 탈출이다. 한국은 1990년 베이징대회부터 2010년 광저우대회까지 지난 6차례 아시안게임에서 1998년 방콕대회(8강)를 제외하고 전부 4강에 올랐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동메달만 3개였다. 인천에서 이 모든 아쉬움을 털어냈다. 북한전 열세도 극복해 기쁨이 배가됐다. 올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이 북한에 전부 무너졌다. 9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16(16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 이번 대회 여자 4강전에서 한국은 북한에 잇달아 1-2로 역전패했다.

●연이은 남북대결…세계의 관심 '후끈'

남녀축구에서 내리 남북대결이 성사되자, 전 세계의 관심도 뜨거웠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대결은 국제스포츠계에서도 핫이슈였다. 외신 상당수가 최대 이벤트로 남자축구 결승을 꼽았다. 로크 촨 리(홍콩) 기자는 "북한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했는데, 인천에서 해소됐다"며 웃었다. 정치적 특수성으로 남북 관계에 늘 민감한 일본과 중국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을 현장으로 보냈다.

인천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축구대표팀 '통 큰' 포상금

축구협 "광저우 때보다 훨씬 많을 것"
선수 1인당 2000만~3000만원 전망

대한축구협회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태극전사들에게 '통 큰' 포상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남자축구대표팀은 2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인천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북한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일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우승해본지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간 딱히 금메달과 관련한 포상 내역이나 규정은 없었다. 별다른 기준도 없다"면서도 "동메달을 따낸 4년 전 광저우대회 포상이 기준이 되겠지만, 당연히 그 때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4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1로 패한 뒤 이란과의 3·4위전에서 4-3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따냈다. 당시 축구협회는 선수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남자축구의 결승 진출 자체도, 마지막 우승도 28년 만이었다. 남자축구대표선수들은 이번 금메달로 군 면제 혜택을 받지만, 축구협회는 이미 별도의 포상금 지급을 고민해왔다. 이 관계자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승인 과정도 남아 있지만 성과만큼의 확실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계에선 포상금 규모를 1인당 2000만~30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연령별(23세 이하) 대표팀이 출전하는 대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2014브라질월드컵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1인당 3000만원씩이 지급됐다. 축구협회는 광저우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따낸 여자대표팀에게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 | 남장현 기자

여자농구대표팀이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을 70-6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여자농구 AG 金 언니들이 해냈다

변연하·신정자·이미선 마지막 AG서 맹활약
70-64로 중국 꺾고 20년 만에 금메달 '감격'

여자농구대표팀이 20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위성우 감독(우리은행)이 이끄는 한국은 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4인천아시안게임 여자농구 결승에서 중국을 70-64로 꺾고 우승했다. 한국의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금메달은 1994년 히로시마대회가 마지막이었다.

힘과 높이를 앞세운 중국을 맞아 경기 내내 고전한 가운데, 이미선(35·삼성)-변연하(34·KB국민은행)-신정자(33·KDB생명)의 노장 3총사가 금메달을 위해 온 힘을 짜냈다.

준결승까지 경기당 평균 5.0점에 그쳤던 변연하(16점·4어시스트)는 전반에만 3점슛 3개를 포함해 12점을 집중시키며 공격을 혼자 이끌다시피 했다. 신정자(14점·5리바운드)는 상대 장신을 맞아 궂은일을 도맡으면서도 4쿼터 중반에는 레이업과 중거리 슛으로 결정적 득점을 올렸다. 최고참 이미선(2점·5리바운드·3스틸)도 4쿼터 3개의 스틸과 1개의 블록슛으로 중국의 공격을 차단하며 경기 흐름을 한국으로 돌렸다.

이날 TV 중계 해설을 맡은 박정은(37) 삼성 코치는 "어제(1일) (이)미선이, (변)연하와 연락했다. 둘 다 이번이 마지막 대표팀 생활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부담이 큰 모양이었다. 부담도 많고,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잘 이겨준 후배들이 자랑스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은 이미선, 신정자를 필두로 양지희(30·우리은행), 김단비(24·신한은행) 등이 적극적 수비를 펼쳐 4쿼터 시작 후 8분간 중국의 득점을 단 1점으로 막아낸 데 힘입어 승기를 굳혔다.

경기 후 김단비는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선은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동안 농구를 해온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대표선수로서 마지막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매우 기쁘다"며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 수
6.5이하	주문제작
6.5	1호
6.75	2호
7	3호
7.5	4호
7.75	5호
8	6호
8.25	7호
8.5	8호
8.75	9호
9	10호
9.25	11호
9.5	12호
9.75	13호
10	14호
10.25	15호
10.5	16호
10.75	17호
11	18호
11.25	19호
11.5	20호
11.75	21호
12	22호
12.25	23호
12.5	24호
12.75	25호
13	26호
13.25	27호
13.5	28호
13.75	29호
14	30호
14.25	31호
14.5	32호
14.75	33호
15	34호
15.25	35호
15.5	36호
15.75	37호
16	38호
16이상	주문제작